

법무부장관,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 실시

-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·노후시설 개선 집중 점검**
- 장관·법조기자단, 교도작업 등 수용생활 직접 수행**

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4월 15일(수) 안양교도소에서 ‘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’을 실시했다.

이번 현장 진단은 안양교도소의 노후 시설과 열악한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,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이 직접 수용생활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.

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*는 현재 사용 중인 우리나라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로, 지속적인 보강과 보수를 통해 사용 중으로 수용자의 안전과 인권, 위생 및 처우 측면에서 시설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다.

정성호 장관은 이날 수용동과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의 시급성을 재확인했다.

* 안양(교)는 대형 혼거실(정원:9명)에 일시적으로는 최대 20명까지도 수용

이어 정성호 장관은 법조기자단과 함께 수용복을 착용하고, 입소 절차를 시작으로 교도작업, 인원 점검, 식사, 출정 등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했다.

정성호 장관은 “20여 년 전 찾았던 안양교도소의 모습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”며, “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”고 밝혔다.

이어 “과밀수용 해소와 시설 개선을 통해 교정의 실효성을 높이고, 국민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이날 동행한 한 기자는 “이번 현장 진단을 통해 과밀수용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실감했다” 며, “앞으로 교정행정에 대해 보다 균형 있고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 고 말했다.

법무부는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개발 기조에 발맞춰 앞으로도 다양한 교정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해, 교정 현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교정본부 교정대외협력단	책임자	단 장	승영근 (02-2110-4579)
		담당자	서기관	최소연 (02-2110-4585)



공공누리

공공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라